

충남 무형문화재 제24호 '설위설경' 기능보유자 장세일 법사

신상구 | 천안중 사회과 교사(향토사학자, 시인)



1. 들어가는 말

2011년 5월 17일 현재 태안지역에는 90여 명의 무속인들이 거주하며 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무속인은 장세일 법사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앗은곳으로 인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무속인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4호인 장세일(張世壹, 79세) 법사,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인 대전의 앗은곳 기능보유자인 신석봉(申石奉, 75세) 법사와 송선자(宋善子, 66세) 보살,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0호인 충청도 앗은곳 기능보유자 신명호(申明浩, 67세) 법사,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최갑선(崔甲善, 59세) 등 5명에 불과하다.

장세일 법사는 고 한홍식(韓洪錫, 1890-1959) 법사 계보로, 특히 설진(設陣)에 쓰이는 부적과 양각방식(陽刻方式)의 종이 오리기(종이 바수기)를 잘 해 1998년 7월 25일 충남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받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앗은곳보다는 선굿 중심으로 연구되는 바람에 장세일 법사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은 단 한 편(권)도 발간되지 않았고, 다만 신문과 잡지 등에 장세일 법사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현장 르포(reportage) 형식의 글들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발표된 글들을 수집정리하여 참고하고,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장세일 법사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밤섬 출생

청정(淸淨) 장세일(張世億) 법사는 1932년 8월 14일(음력 7월 7일)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구의 덕수 장씨 문중에서 농부인 아버지 장오선(張吳仙)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6대조부터 8대째 250년 이상 소근진성(조선시대의 읍성으로, 충청남도 기념물93호로 지정)으로 유명한 소근리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태안 토박이다.

해방 직전인 1943년 13세 때 소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친구가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운영하는 서당에서 3년 동안 한학을 공부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2차 징집 때에 20세로 군에 입대해 보병 제7사단으로 배치 받았다.

입대한지 한 달 만에 10일 간 휴가를 얻어 원북면 신두리에 사는 안동권씨 가문의 동갑내기인 권숙자(權淑子, 72세)와 중매결혼을 하여 신집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귀대 후 금화전투에 참전하여 금화강(金化江) 도하작전을 벌이던 중 어깨에 적 포탄의 파편을 맞아 대

전으로 후송되었다. 그는 그곳의 한 국민학교에 임시 마련된 병원에서 1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가 22세 때에 2년 간 군복무를 하고 만기 전에 의병 제대를 하고 말았다.

제대 직후 그는 만리포에서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배표 파는 일을 했다. 그리고 원북면 곰섬(熊島) 간척 공사장에서 몇 달 간 사무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1953년 23세 때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한 동네 사는 사람이 경문(經文)을 공부하려고 가져온 경서(經書)를 빌려 보다가 그 직후부터 경을 읽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송경법사(誦經法師)들 중에서도 무지한 이들이 많아 입으로 경문을 달달 외우기는 하면서도 그 경문의 뜻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경문을 부분적으로 잘못 읽는 경우도 많았고,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경문책들 중에는 잘못 기록된 부분이 많아서 경서를 빌려다가 독학으로 경을 공부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사진 1〉 장세일 법사 자택 전경



3. 34세에 본격적으로 무업 시작

그러다가 1964년 34세 때에 신명(神命)을 받아 스승인 한홍석(韓洪錫) 법사와 소원면 법산리에 사는 어느 여자 보살이 내림굿을 해주는 바람에 자택에 각성받이로 천수암(千手庵)이라는 법당(法堂)을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경을 읽는 행술을 하기 시작했다.

장세일 법사의 신당인 천수암은 그의 집 현관 좌측의 방을 꾸며 만들어 놓았다. 신당의 중앙에는 불상이 놓여 있고, 그 왼편 끝 쪽에는 신장대가 놓여 있다. 벽에는 4장의 무신도가 걸려 있는 데, 좌측으로부터 신장(神將)·삼불칠성(三佛七星)·산신(山神)·용왕(龍王)이 봉안되어 있고, 그 앞에 각각 옥수(玉水) 잔이 올려져 있다. 그리고 칠성 앞에는 일곱 촛대가 놓여 있고, 신당의 오른쪽 끝에는 인등이 밝혀져 있는데, 장법사의 가족들과 그의 단골들이 바로 인등에 해당된다고 한다. 한편 신당의 위편에는 '섭(攝)', '오(杼)', '봉(奉)', '태상노군(太上老君)'이라고 써붙여 놓았다. 이는 '내가 받드는 태상노군이 굳게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장세일 법사가 도교 계통의 최고신인 태상노군(太上老君) 즉 노자(老子)를 굳게 신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장세일 법사는 그의 법당에서 해마다 네 차례 맞이고사를 지내고 있다. 정월 초승, 심진날, 칠석, 상달에 지내는데, 이 때 단골들이 쌀을 가지고 오면 시루떡을 찌서 정성을 드리게 해 준다. 또 단골들에게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를 뽑아보게 하여 단골과 그 식구들의 운세를 점쳐주기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장세일 법사가 30대 중반에 천수암에 경꾼들을 모셔놓고 몇날 며칠 경을 읽으면 마당에 흰옷 입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태안지역에서 설위설경(법사의 굿 장소를 종이로 꾸민 화려한 장식)의 행술에 제일 유능하고 체계적인 학식을 갖추고 있었던 원북면 장대리 2구 거주의 한응회(韓應恢, 1959년 작고) 선생을 모시고 설경에 대한 제반 행술을 사사받고 본격적으로 법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한응회 옹과 함께 독경을 하러다니



〈사진 2〉 장세일 법사 신당인 천수암 모습
장세일 법사의 신당인 천수암에는 좌측으로부터 신장·삼불·칠성·산신·용왕이 봉안되어 있다.



면서도 다른 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적과 종이 오리기(종이 바수기)와 경문 등을 연구 수집했다. 그러다가 1986년 56세 때에는 경문을 모아서 편집한 「경문요집」을 손수 발간하여 주위에 행술하는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1995년 65세 때에는 태안을 남문리 3구 구시장에 현대철학관을 개설하고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독경을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거나 풍수지리(風水地理)에도 밝아 지관 일을 함께 하였다.

4. 68세 때에 서울 무속명인전 참가

1997년 6월 67세 때에는 태안군 문화원 주선으로 공주민속극박물관에서 설위설경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68세 때인 1998년 4월에는 제1회 계룡산 산신제의 설위설경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해 7월 25일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도 충청남도로부터 설위설경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받았고, 그 해 10월에는 그 후광을 받아 서울 놀이마당의 무속명인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69세 때인 1999년 5월에는 제2회 계룡산 산신제에 참가해 설위설경을 발표하여 설위설경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70세 때인 200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태안문화원에서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설위설경 지정기념 제1회 충청도 설위설경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전수자인 정해남(丁海男), 김동구(金東九), 김종일(金鍾一) 등과 설위설경보존회 회원인 윤보생, 조계자, 이종영 등이 참가해 부정풀이, 조왕경, 조상경, 성주경, 지신경, 삼신경, 축사설경, 해원경, 살풀이, 귀신착수, 화전점무 등을 같이 공연함으로써 자리를 빛내주었다.

71세 때인 2001년 4월에는 계룡산 산신제에 참가해 설위설경을 시현하고, 그 해 10월 7일에는 공주민속극박물관에서 그의 전수자로 알려진 정종호·정해남·김동구·김종일 등과 함께 제2회 충청도 설위설경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72세 때인 2002년 6월에는 서울중요문화재 전수관에서 개최된 '2002 풍류 한마당'에 참여한 바 있고, 동년 9월에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제3회 충청도 설위설경발표회를 갖고 김종일·조부원 법사와 함께 부정풀이·축사경·용왕제를 시현해 보여준 바 있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50여 년 간 심혈을 기울여 충청도의 설위설경(설경)을 집대성해 온 바 경문



(經文)에 따라 50여 종류의 무늬로 된 종이 공예로 설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장세일 법사가 송독하고 있는 경문은 도신경을 비롯해 육계주, 천수경, 축원경, 심조경, 조왕경, 지신경, 명당경, 신왕경, 부정경, 팔문경, 기문경, 팔양경, 연명경, 조상경, 옥갑경, 신축경, 신장하강, 동신경, 백살경, 육모적살경, 삼재경 등 30여 종류가 있다. 이 경문들은 대개 두세 시간을 줄곧 외어야 할 정도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경문들을 외우고 있어 하루 종일 내내 독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그가 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설진에는 종이 오리기와 함께 여러 가지 부적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부적은 가택평안·장례식·축기·재수·삼재부적 등 수 백종이 있다고 한다.

그가 부적을 만들 때는 전날부터 모든 부정을 굽히고 목욕재계한 후 일체 외출을 삼가고 헛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독경으로 정진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자정에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소반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초를 켜놓는다. 그 다음 향을 사른 후 북두재배를 정성스럽게 드린 후 부적을 만드는데, 그때 그 부적에 알맞은 주문을 계속 외운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약방에서 병세에 따라 여러 가지 처방을 하듯 손님들의 병세에 따라 자기가 저술한 「백방길흉비결(百方吉凶秘訣)」을 참고하여 두세 가지 비방(秘方)을 함께 병합하기로 하며 재료는 경면주사와 황지를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송경보다는 양각방식(陽刻方式)의 종이 오리기(바수기, 까수기)를 잘해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다.

설경의 종이 까수기는 무속신앙의 한 가지일망정 정갈하고 엄숙한 종교적 자세를 지녀 야만 고도의 기법을 차질 없이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가 50년 동안 만든 정교한 종이 공예 작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

그런데 무속 종이공예 작품은 일단 굿이 끝나고 나면 모두 불에 살려 버리는 경향이 있어 지금 장세일 법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속 종이 공예 작품은 그가 만들어온 작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굿을 하더라도 종이 공예작품을 설치해 놓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종이 오리기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 무속인들의 종이 오리기 공예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24호 기능보유자 장세일 법사도 앉은곳을 할 때 종이 바수기를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 번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종이 오리기는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귀찮아서 못하는가 하면, 40대 이하의 젊은 후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차 그 맥이 끊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명과 흥, 애절함과 청아함이 경천사상(敬天思想)과 잘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고



유한 정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독경도 옛날에는 밤을 지새우며 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달려 한두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많다고 한다.

또한 태안읍 남문리 3구 구시장 안에 위치해 있던 설위설경보존회 사무실은 동료 무속인인 방윤희 보살이 전세로 얻은 건물을 양해를 구하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종이 오리기 작품과 부적 작품 및 집기로 가득 차 있어 너무 비좁고 어수선한 편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도저히 설위설경의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그 사무실마저 임대인이 2003년 3월 31일자로 비워달라고 하여 어디로 작품을 옮겨 놓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태안군청에서 그 서글픈 소식을 듣고 태안읍 사무소 앞의 국악협회 건물 안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어 그곳으로 작품을 옮겨 놓고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 역시 장소가 비좁고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5. 장산리 사무실에서 설위설경 전수

그리하여 2004년 12월 18일에는 설위설경보존회 사무실을 태안소방서와 태안해안경찰서 사이의 국도변에 위치한 태안읍 장산리 1구 113-4번지의 '농민의 집'(태안군청 건물)으로 옮겨 설위설경 관련 각종 작품을 전사해 놓고 설위설경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곳 역시 장소가 비좁고 읍의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찾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그 후 장세일 법사는 2005년 9월 2일에는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선착장에서 제6회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 설위설경발표회를 개최하고 용왕제·넋건지기·진혼제 대제·해원·작품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장세일 법사는 2006년 9월 15일에는 연포해수욕장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충청남도 설위설경 발표회를 개최했고, 2007년에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학암포 선착장에서 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충청남도 설위설경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이어서 2008년 8월 28일에는 몽산포해수욕장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충청남도 설위설경 발표회를 개최했고, 2009년 5월 26일에는 태안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충청남도 설위설경 발표회를 개최하여 설위설경을 널리 알리는데 많이 기여했다. 한편 장세일 법사는 지난



2009년 8월 7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연전시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민속극장 풍류에서 주최한 설위설경 특별 공연에서 25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무료로 부정플이를 했고, 2010년 2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 정월 대보름 맞이 대동굿 놀이 한마당 잔치에서 1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무료로 '고천 설경'을 하여 태안의 설위설경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고 한다.

6. 나가는 말



〈사진 3〉 장세일 법사가 2003년 10월 태안읍사무소 앞에 위치한 설위설경보존회 사무실에서 충청도 설위설경(設位設經)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청정(淸淨) 장세일(張世晷) 법사는 고 응회(應恢) 한홍석(韓洪錫, 1890-1959) 법사 계보의 무속인으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80평생을 향리에서 농업과 무업을 겸업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24호 설위설경 기능보유자로 태안설위설경보존회 회장을 맡아 거의 해마다 설위설경발표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그는 23세부터 35년 동안 선배 법사와 동료 법사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경문을 수집해 「경문요집」을 발간할 정도로 불교와 도교 경문에 조예가 깊고, 독경수련(讀經修鍊)을 오래하여 앉은곳을 할 때 30여 종류의 경문을 암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종이 오리기 기능이 뛰어나 50여 종류의 종이무구와 100여 종류의 부적을 제작해 설진에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은 아주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거나 화랑에서 고가로 거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그는 계보에 관계없이 설위설경 전수교육을 주도하여 내포지역의 무속인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편이다.

그런데 무업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이제 79세로 노쇠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은데다가, 그의 제자들이 후계자 선정문제를 놓고 서로 시기하고 있고, 종이무구 제작 기능과 경 읽는 방법을 전수받는 데에 소홀히 하여, 아직까지 믿음만한 실력있는 제자를 양성하지 못해 늘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깝다고 한다. 게다가 무속인들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40대 이하의 젊은이들 중에 설위설경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맥이 서서히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장세일 법사의 생애와 업적을 보다 선명하게 조명하기 위해 고 이래황 법사와 비교 고찰해 보면, 경문의 내용과 설경은 고 이래황 법사가 좀 더 잘 했고, 종이무구 제작과 설위는 장세일 법사가 좀 더 잘 했다고 한다. 특히 고 이래황 법사는 앉은곳에서 경문을 중시한 나머지 경문의 핵심 내용을 전통 한지에 쓰거나 파서 설위를 한데 비해, 장세일 법사는 경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전통 한지에 학(鶴)·나비·꽃·12지신상(支神像)등을 파서 설위를 하여 서로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

장세일 법사의 생애에서 특이한 점은 23세에 득학으로 경문을 습득하여 무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34세 때에 신명(神命)을 받아 스승인 한홍석(韓洪錫) 법사와 소원면 법산리(法山里)에 사는 어느 여자 보살이 내림굿을 해주는 바람에 자택에 각성(各姓)받이로 천수암(千手庵)이라는 법당(法堂)을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경을 읽는 행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업적은 양각방식의 종이 오리기 공예인 종이무구를 제작하는 기능이 뛰어나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제24호 설위설경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설위설경 전수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덕수장씨족보편찬위원회, 「덕수장씨족보(甲寅譜)」, 대전 : 회상사, 1974.
2. 박춘석, 「태안의 지명」(중보판), 태안문화원, 1993.11.20. pp.308-309.
3. 태안군지 편찬위원회, 「태안군지」, 대전 : 충남인쇄협동조합 서산인쇄사, 1995.12.29.
4. 이래황, 「일생의 고락과 경험을 회상(회고록)」, 1997.3.25. pp.1-2.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해설집」, 근대화인쇄사, 2001.3. p.703.
6. 공주민속극박물관, 「장세일 연보」, 제6회 공주 아시아 1인극제 축하 공연 제2회 충청도 설위설경발표회(퇴신거리) 홍보 팸플릿, 2001.10.7. p.1.
7. 서 원, 「이 사람이 지킨 우리 것 : 이기 종이 까셔서 귀신 잡는 기어. 진을 친다 말이며」, 「흙으로 빛는 이야기 디 새집」, 2001년 가을호, 열림원, 2001.10.13. p.60.p.70.p.87.
8. 소원면지편찬위원회, 「소원면지」, (주)법신사, 2002.12. pp.142-143.



9. 지묘하, 「설위설경 속에서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며 : 충남도 무형문화재 24호 設位設經 보유자 장세일 선생, 한국예총 충남지회, 『충남예술』 2002년 겨울호, 2002.12. p.22.
10. 신상구, 「태안지역의 무속문화에 대한 현장조사 연구」,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수상논문집」, (주) 엠지알코리아, 2003.11.15. pp.30-31.
11. 신상구, 「태안지역의 대표적 무속인인 한홍석과 장세일 법사 고찰」, 태안문화원, 『소성의 향기 제12집』, 도서출판 한술, 2006.12.20. p.270.p.278.

도움말 주신 분

1.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구 야장 문항수(文恒洙, 66세)씨.
2.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2구 32번지 윤태목(尹泰睦, 77세)씨.
3.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2구 32번지 윤경상(尹瓊相, 52세)씨 증언.
4.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2구 6-11번지 한상인(韓相仁, 52세) 법사.
5.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구 465-18번지 문우석(文禹錫, 76세)씨.
6.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설위설경보존회 사무국장 김종일(金鍾一, 63세) 법사.
7.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所斤里) 1구 장세일 법사 부인 권숙자(權淑子, 72세)씨.
8.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설위설경보존회 총무 황옥순(黃玉淳, 48세) 보살.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연전시팀 공연담당 직원 김연욱(金淵旭, 31세)씨.